

Portfolio

November



2024

김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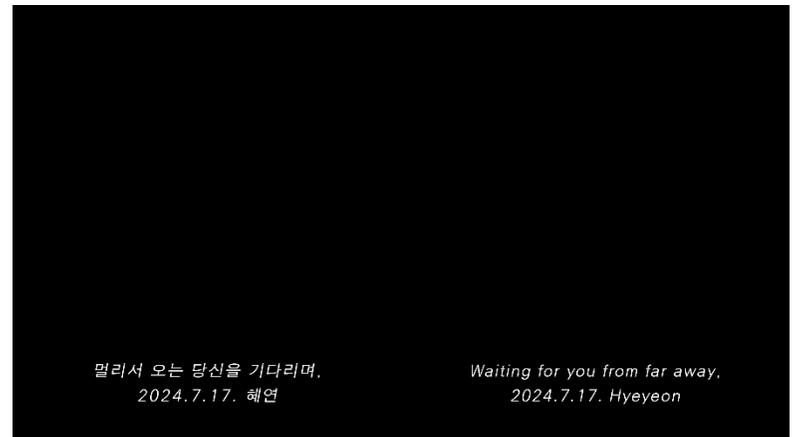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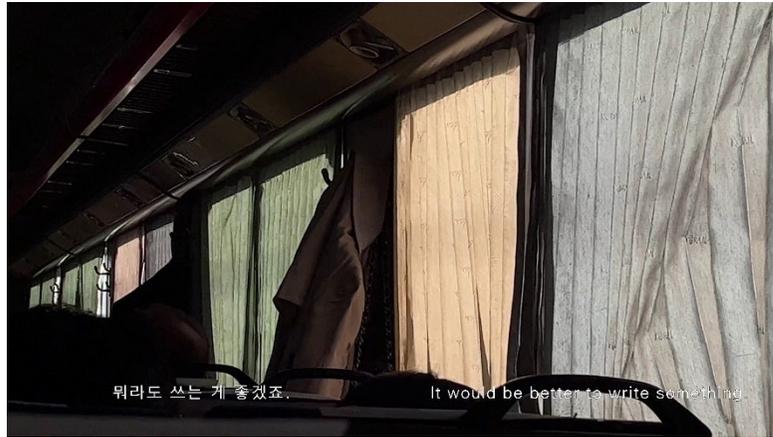


당신을 위한 지시문:

“매주 수요일 3시-5시 낮잠을 이긴 사람은 전시장에 모인다. 서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명의 당신은 종이로만 대화한다.”

김혜연은 가족 간의 사적 퍼포먼스를 담은 영상 〈숨만 쉬는 방〉 (2020)을 또다른 몸을 가진 1:1 퍼포먼스 〈숨만 쉬는 방〉 (2024)으로 꺼내 놓는다. 2021년 가을, 특수한 조건 아래 수행되어 공식적인 재연은 불가능하다고 내린 결론은, 2024년 여름, 가족을 우정의 관계로 재해석하면서 퍼포먼스 활성화의 가능성을 상상한다. 김혜연은 통상적인 우정의 영역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하며 일시적인 우정의 순간과 공간을 생성한다. 기존의 관계를 모두 해체하고 수평적인 형태로 다시 연결되기 위한 작은 움직임, 두 명의 당신은 서로에게 어디까지 평행하게 가닿을 수 있을까? (글: 이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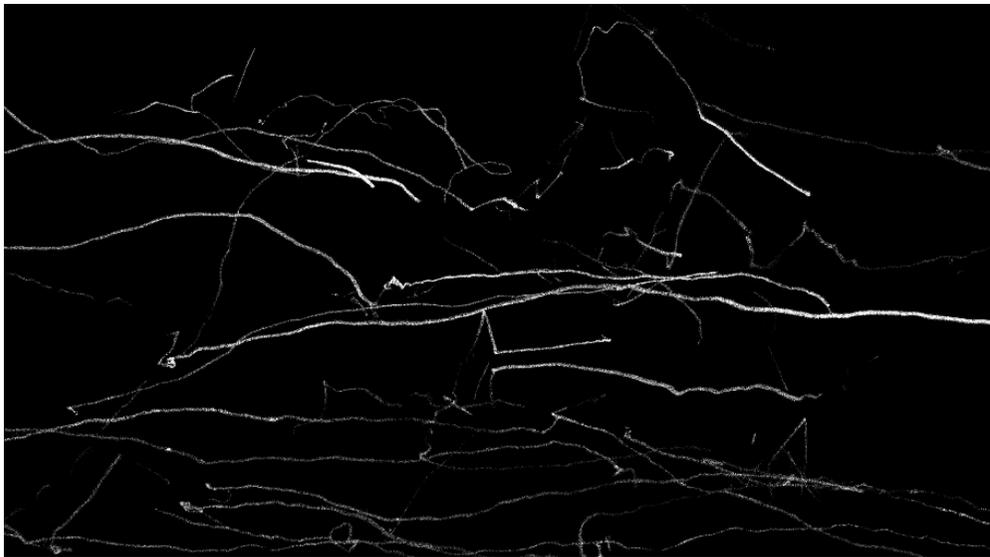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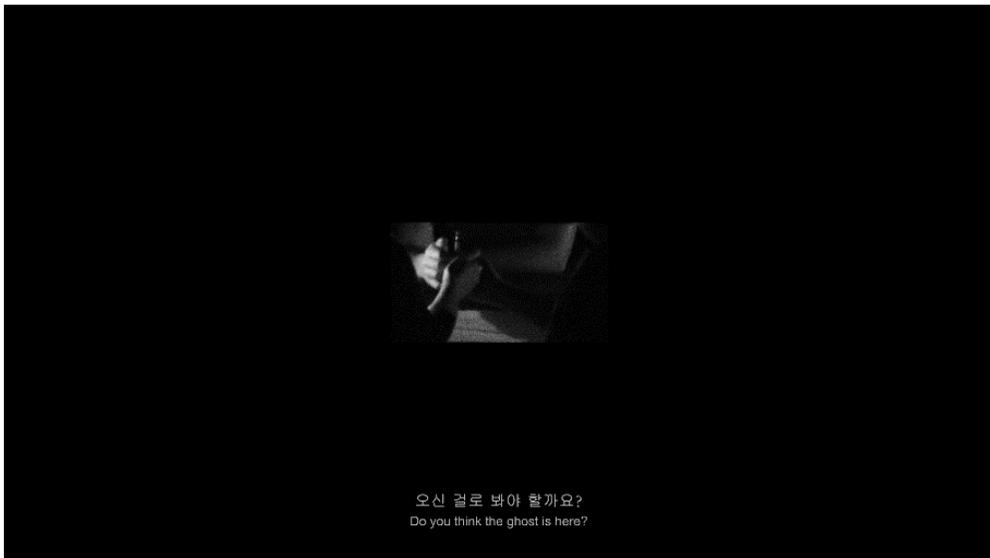
숨만 쉬는 방,
퍼포먼스; 초대장, 당신을 위한 지시문, 티켓, 안내원,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곳, 두 명의 당신, 한장의 종이, 그리고 대화, 가변시간, 2024
Room for Breathing, Only,
performance; an instruction, tickets, a tour guide, a place to sit face-to-face, two of you, a piece of paper, and conversation, variable time, 2020



퍼포먼스로 재작동하게 된 〈숨만 쉬는 방〉 (2024)에 대한 초대장을 영상으로 만들었다. 2024년의 〈숨만 쉬는 방〉이 2020년의 〈숨만 쉬는 방〉을 참조하듯이, 〈초대장〉은 3년 전의 작업인 〈미래로 돌아가기〉(2021)를 참조한다. 이는 이전에 작품을 담은 지점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 동시에 같은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이다. 영상 속 텍스트는 관객과 작가의 우정의 가능성을 질문하고 이름 없는 만남을 제안한다.

초대장, 단채널 HD 영상, 3분 50초, 2024

Invitation, single channel HD video, 3min50sec, 2024



아름다운 형식, 2023, 9분20초, 단채널 FHD 비디오

Beautiful Forms, single channel FHD video, 9min20sec,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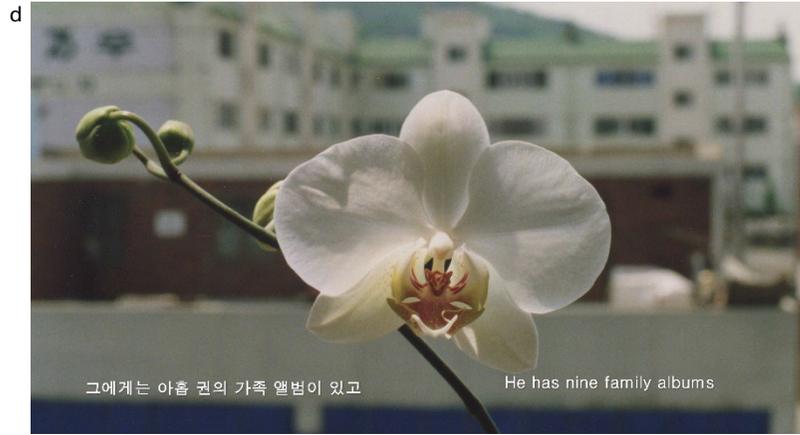
이 작업은 제사와 분신사바를 병치하여 의식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제사와 분신사바 모두 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분신사바가 제사보다 폄하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상과 귀신을 가르는 데 작용하는 힘은 무엇일지 생각해본다.



중요한 이야기, 2022, 14분, 단채널 4k 비디오

Important Stories, single channel 4k video, 14min, 2022

*설치 전경(제공: 공간 힘)



〈중요한 이야기〉는 자기만의 방에 대한 중요하지 않은 세 이야기를 묶은 것이다. 실제로는 한 번도 자기만의 방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도 내가 모르는 방이 있을 것 같았다. 사람들이 애써 자기만의 방을(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은유적이든) 마련하는 일은 예술 작업을 만드는 일과 닮아 있다.



〈중요한 이야기〉 중 2부
‘사람이 없는 사진’
스틸이미지



미래로 돌아가기, 단채널 HD 영상, 14분, 2021

Backwards To the Future, single channel HD video, 14min, 2021



미래로 돌아가기, 단채널 HD 영상, 14분, 2021

Backwards To the Future, single channel HD video, 14min, 2021

<https://vimeo.com/676741430/e64deb450c>

작업 노트

어떤 것도 새롭게 촬영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푸티지만을 가지고 작업을 만들어 보기로 한다. 버릴 곳이 없어 대기 중인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보면, 인류는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듯하다. 새로운 것을 더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까?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컴퓨터, 핸드폰, 외장하드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잠재적 쓰레기들. 이번에는 그것들을 잠재적 작업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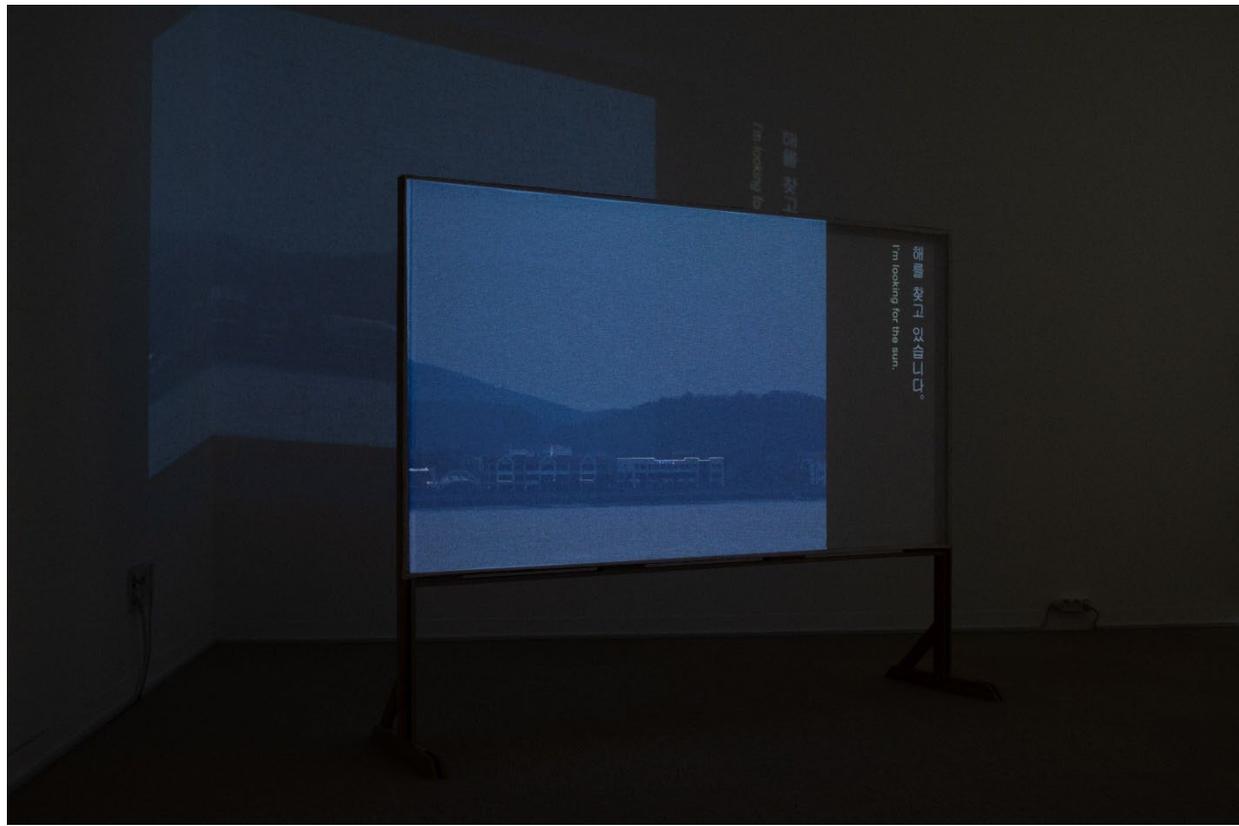
이것이 제가 유일하게
찍은 일출 장면이다.

This was the only sunrise
I captured on film.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라는 문장을 그대로 따르는 데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많은 상황이 가변적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일정한 해의 주기에 나의 불안한 마음을 맡겨보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일조차 매일 다른 난관에 부딪힌다. 지는 해와 지는 해가 아닌 것 사이, 기다림과 놓침 사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어떻게든 풀리리라는 희망 사이, 진부한 것들에 대한 애정과 지긋지긋함 사이를 오가며 작업했다.

*(방정환, “어린 동무들에게”, <개벽> 제25호, 1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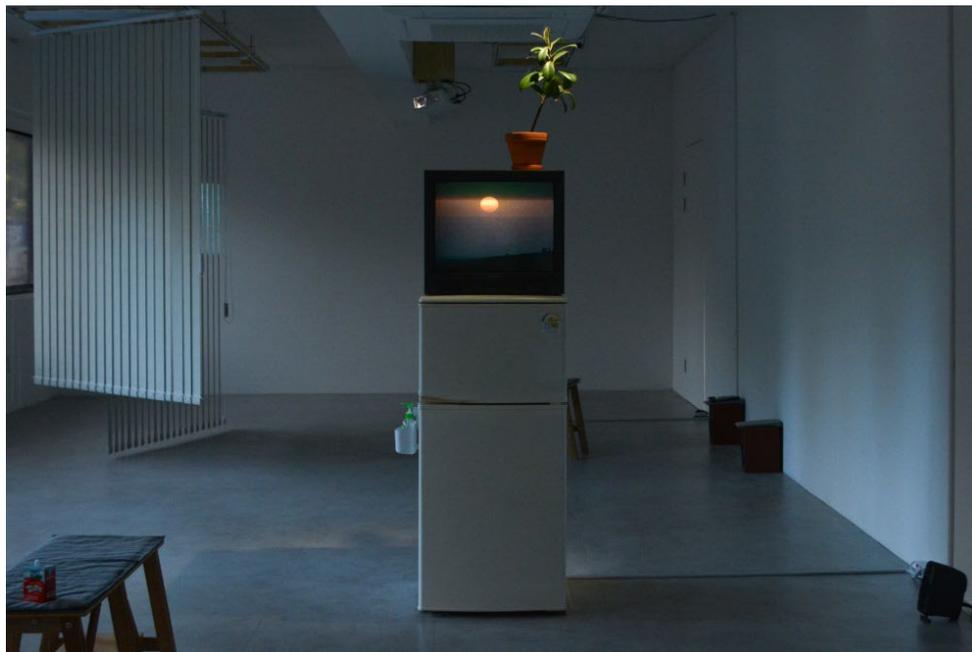
지는 해와 지는 해가 아닌 모든 것, 단채널 HD 비디오, 11분, 2020
The Setting Sun and Everything That Isn't the Setting Sun, single channel video, 11'00",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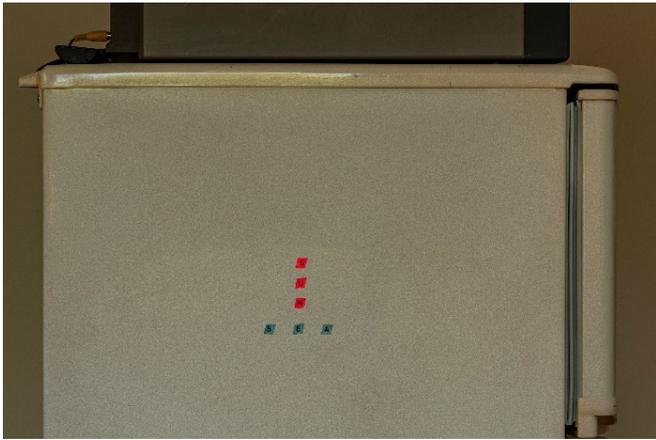
설치 전경
Installation View

《지는 해와 지는 해가 아닌 모든 것》(2020), 인천아트플랫폼 프로젝트룸, 인천
The Setting Sun and Everything That Isn't the Setting Sun(2020),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비디오 루프, 냉장고, CRT TV, 화분, 피크닉 200ml 팩, 포스트잇, 가변크기, 2021
We'll Promise To Watch, looped video, rubber plant in a pot, CRT TV on refrigerator, picnic juice packs, paintmarker on post-it, 2020



설치 전경
Installation View

《얼굴 없는 것들과 마주하기》(2020), 아트랩반, 서울
Facing the Faceless(2020), ArtLabban, Seoul

*사진: 홍철기
*photographed by *Cheolki Hong*



숨만 쉬는 방, 단채널 비디오, 4분, 2020

Room for Breathing, Only, single channel HD video, 4min, 2020

<https://vimeo.com/395422972/d6b3e21251>

가족을 위한 지시문

조명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준다.

다같이 동그랗게 모여 앉는다.

모두 숨죽인다.

준비한 종이를 가운데 놓는다.

돌아가면서

음성이나 문자 언어가 아닌

종이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진심을 말한다.

각자 상대방의 말을 속으로만 짐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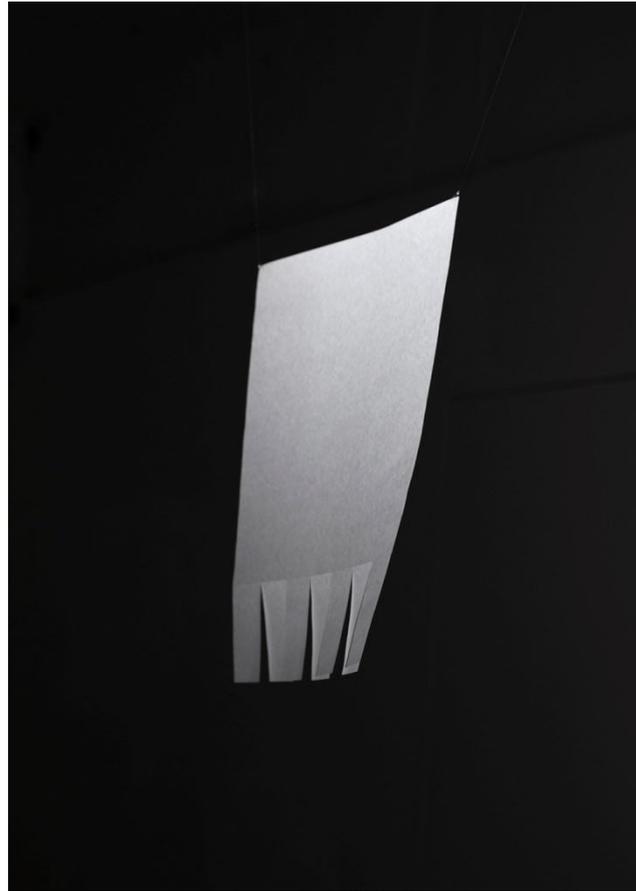
더이상 할말이 없을 때 그만둔다.



엄마의 문자는 한결같이 ‘사랑하는 딸(하트)’로 시작한다. 문자가 오면 그 첫 문장만 보이는 알림창이 화면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진다. 문자를 열어보면 숨이 막히지만 나의 그 숨막힘을 말하는 일은 어쩌면 엄마에게는 부당한 일이다.

가족의 대화는 우아하게 끝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가족을 <숨만 쉬는 방>에 잠시 가둔다. <숨만 쉬는 방>은 엄마의 문자가 ‘사랑하는 딸(하트)’에서 끝나는 곳, 아무도 깊은 마음을 말하지 않고 숨죽인 채 지내는 곳이다. 어차피 아무도 서로의 진심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말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체념과 종이라는 낯선 언어에서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이 공간에 함께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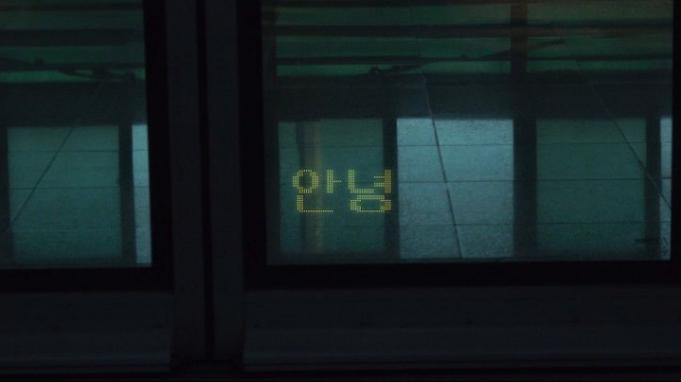
←<숨만 쉬는 방> 스틸 이미지



잠만 자는 방, 종이, 31*23cm, 2020

*Room for Sleeping, Only, paper, 31*23c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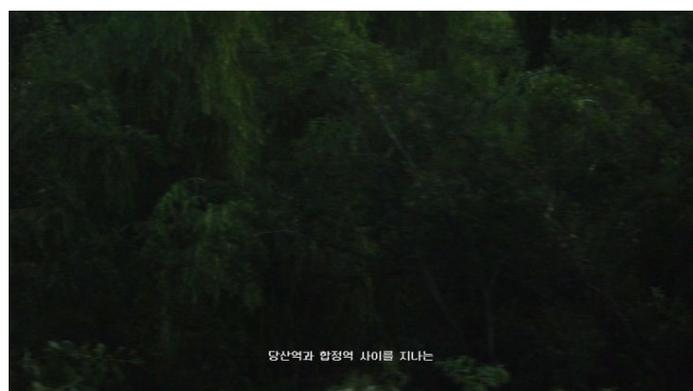
대학가에 붙어 있는 전단에서 ‘잠만 자는 방’이라는 문구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문구가 너무 강렬해서 한동안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간신히 숨만 붙어 있게 하는 최소한의 공간만을 차지하는 세입자가 처한 상황의 잔인함은 그 문구가 가진 묘한 아름다움에 의해 배가된다. 세입자에게 언제나 부족할 잠으로 채워진 공간의 심상은 일면 시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와 정반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전단을 일상적으로 목격해온 우리는 전단지가 백지일지라도 이미 그 익숙한 형태에서 특정한 문구를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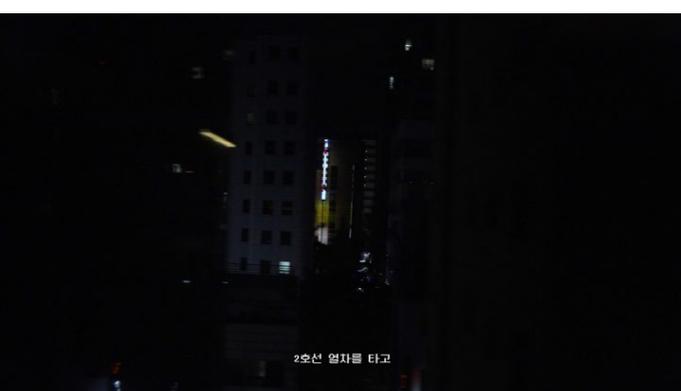
2019년 11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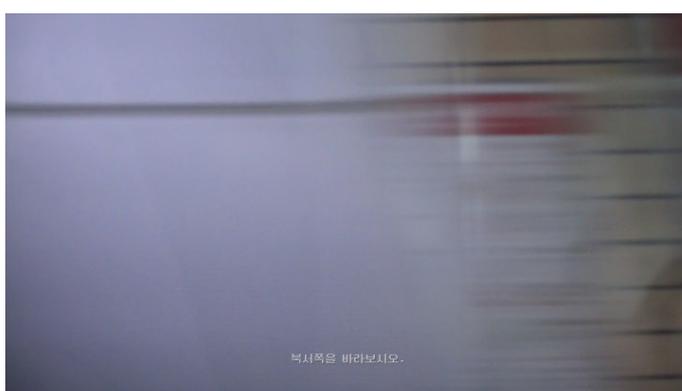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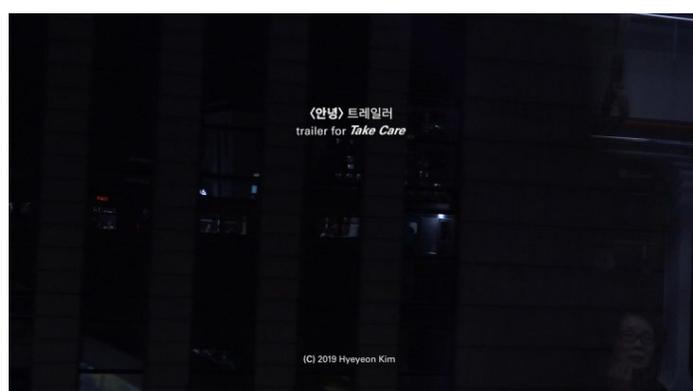
당산역과 함정역 사이를 지나는



2호선 열차를 타고



복시점을 바라보시오.



〈안녕〉 트레일러
trailer for *Take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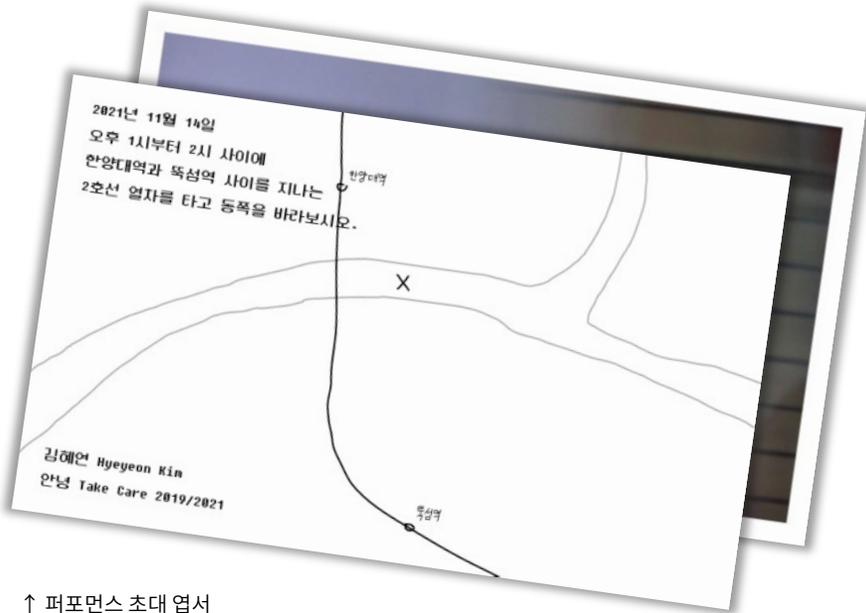
(C) 2019 Hyeeyeon Kim

안녕 예고, 단채널 HD 비디오, 8분20초, 2019
Trailer for 'Take Care', single channel HD video, 8min20sec, 2019
<https://vimeo.com/hyeeyeonkim/takecare>

안녕, 퍼포먼스, 1시간, 2019/2021

Take Care, performance, 1hour, 2019/2021

<안녕>은 멀리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일종의 공연이다. 전시장에서 상영되는 예고 영상에서 공지된 열차 정보에 맞춰 나중에 전철을 타면 창 밖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작년에 만원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일상을 보내면서 언젠가 이 경험을 대상으로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숨쉬기도 힘들 만큼 사람으로 가득 찬 열차를 타고 출근할 때마다 인류애가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말로 타인에 대한 한계치가 점점 낮아져서 조금이라도 남의 삶이 닿는 것이 참을 수 없어지는 게 무섭기도 했다. 신기한 것은, 멀리 보이는 사람은 여전히 반갑다는 점이였다. 비행기에서, 여행지에서, 모노레일에서, 다들 저 멀리 모르는 사람에게 애정을 담아 팔을 크게 흔들어 인사한다.



↑ 퍼포먼스 초대엽서



↑ 제보 영상: 박신영

<https://vimeo.com/651926257>



공기 케이크, 퍼포먼스, 1시간, 2018

Air Cake, performance, 1hour, 2018



↑ 2022년에 별관에서 재작동한 퍼포먼스 기록

<https://vimeo.com/769722857/f3f8123773>

<공기 케이크> 지시문

Instruction for *Air Cake*



한 번에 오직 한 사람만이 숨 쉴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동시에 숨을 쉰 사람,
숨이 바닥난 사람은 죽는다.

서로의 숨소리가 잘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모인다.
잠수하듯이 다 함께 크게 들이쉬고 숨을 멈추고서 시작한다.

언제든 숨 쉴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들이마실 것.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때로는 양보할 것.
모두가 골고루 숨 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죽지 않을 것.

죽은 사람은 말없이 일어나 자리를 뜬다.
나머지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퍼포먼스를 계속한다.
더는 아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숨 쉴 수 있을 것 같을 때,
다 같이 퍼포먼스를 멈춘다.

Only one person can breathe at a time.

Anyone who breathes with other person at a time,
or who runs out of breath is dead.

Gather close so that everyone can hear each other's breathing.
Breathe in deeply and hold the breath as if going underwater together.

Breathe as much as possible whenever you can.
Give way to a dying person sometimes.
Make sure everyone breathes equally.
But most importantly, you shouldn't die.

Dead person will leave the room without a word.
The rest will continue the performance.
When it seems like nobody is dying anymore
and the performance will go on forever,
end it together.

CV

김혜연

iamhyeyeon@gmail.com

2012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시각예술학과 석사 졸업

2009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및 서양화과(이중전공) 학사 졸업

개인전

2023 We Miss, Best Practice, 샌디에고

2021 지는 해와 지는 해가 아닌 모든 것,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8 공기케이크, 777갤러리, 양주

단체전

2024 의향서 : Letter of Intent, 10의 n승 세운상가, 서울 (기획: 이보름)

2023 원피스, 111CM, 수원 (기획: 조주리)

2023 수원문화재야행, 수원 화성, 수원

2022 밤이 없는 방, 공간힘, 부산 (기획: 이다솔)

2022 ECHOLESS, 별관, 서울 (기획: 안부)

2021 모든 것은 그 자리에, SeMA 창고, 서울 (기획: 이지은)

2021 안단테: 걸어가듯 천천히, 17717, 서울 (기획: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2020 여행하는 예술가의 가방,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20 2020 플랫폼 아티스트 - 당장의 질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20 얼굴 없는 것들과 마주하기, 아트랩반, 서울

2020 ○○하여 광명 찾자, 갤러리175, 서울

2019 2019 체크아웃, 777갤러리, 양주 (기획: 김명훈)

2018 뉘앙스, 777 갤러리, 양주 (기획: 장예빈)

2018 HOUSEWARMING, 연희동 433-6, 서울 (기획: 신혜진, 오은정, 이나연, 이주원)

2017 성북예술동, 성북동 일대, 서울

2017 A Research on Feminist Art Now, 스페이스 원, 서울 (기획: 노뉴워크)

2016 무주지,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레지던시

2023 푸른지대창작센터

2020 인천아트플랫폼

2018~2019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 레지던스